

노인의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본 주택유형별 사회적 관계성 연구**

A Study on Social Relationship of Housing Types for Social Health of the Elderly

Author 이연숙 Lee, Yeun-Sook / 명예회장,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이학박사
윤가영 Youn, Ga-Young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장재우 Chang, Jae-woo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안창현 Ahn, Chang-Houn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티라이프텍 연구원 연구교수*

Abstract Rapidly aging society extends the span of aged life of the elderly people longer than before and this trend raises the issue of holistic health of the aged including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making it necessary to study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 to support this trend.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residential planning to support the deterioration phenomenon of social networks due to aging. Social networks here are treated as basic conditions for social health. This study researched the diverse types of elderly housings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and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social affordance characteristics and their potentials for social interactions from the viewpoint of their social relations. literature studies with contents analysis method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rranged primari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 by types of housings. Socially integrated types of housings can be found as inclusive housing type as they have both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an be found in houses in general and the elderly housings,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desirable types in Korea where collective houses are most popular. Form the existing housing plans housing plan direction should move toward socially integrated housing plans that can protect the elderly people collectively and the direction of housing plans here means the direction from more macro-perspective viewpoin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adding interpretation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relations respective housings and promoting housings for the elderly people more desirably.

Keywords 노화,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재택거주, 주거계획
Aging, Social Network, Social Relationship, Aging in Place, House Plann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고령화 사회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특히,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료수준의 개선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의 시작인 1955년생이 65세에 진입하면서 매년 70-80만명의 예비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어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¹⁾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의 저하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사회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건강이라는 이슈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주거 환경은 생활의 질을 책임지는 매우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거계획은 이러한 총체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거계획은 신체·심리적인 특성을 다루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관계를 조명하여 고려된 것은 거의 드문 실정이다. 인적 관계,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는 그 특징 상 직장으로부터의 은퇴를 기점으로 급격히 위축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hnch@yonsei.ac.kr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2-0061908)

1)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하며,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함.

고려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계획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노년기에는 가족·친구 등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세상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인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여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 할 수도 있다.²⁾ 노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후 생활방식이 점차 변화하고, 노인을 배려한 주택이 다양하게 발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관계망 변화 측면에서 주택유형 사례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노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쇠퇴현상을 지원하는 주거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출발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건강을 배려한 주거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본 연구의 주목적은 노인주택의 유형과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사회적 관계망이란 상호간의 인적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특별히 이들 세대를 기점으로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쇠퇴현상을 조명하여 주거계획을 제안하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이후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주택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도시공간을 총체적 공간과 연계하는 사고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문헌고찰

2.1. 노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1) 노화에 대한 이해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며 나이가 들에 따라 신체의 각 부분도 노화현상을 일으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점차적으로 몸의 각 기능이 퇴화하고 성격도 변화한다. 노화란 사전적 의미로 나이가 들어 생물의 성질이나 기능이 쇠퇴하여 늙어간다는 뜻으로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형적으로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변화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 유기체 전체에게 보편적이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과정으로 긍정적, 부정적인 변화 모두를 의미한다.³⁾

위와 같이 노화는 생물학적 변화만을 초래하는데 국한

되지 않고, 노년기의 심리적 기능 및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퇴직 후 경제활동의 감소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가족 내에서는 자녀의 독립 등으로 사회적 의무가 줄어들어 여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 역할을 잃는다는 상실감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해 발달학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통합하고 완성해 간다는 노화의 긍정적 측면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더 크게 부각되어 있는 실정이다.⁴⁾ 다행히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지적 수준이 높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의 긍정적 측면, 즉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 사회적 건강은 오늘날 네트워크의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2) 노화에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사회적 노화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며 신체적,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논해진다. 이러한 노화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년기로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지는 개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상황 변화 뿐 아니라 사회가 노화 과정이나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노인인구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변화의 측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노화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로 노년기로의 전환과 함께 나타나는 노인 개인수준의 사회적 상황 변화로 사회적 노화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사회적 노화란 사회생활주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이다.⁵⁾

오늘날과 같은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대의 정보 산업사회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 혹은 연장자로서 군림하던 노인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권위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을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 확립의 문제는 질 높은 노년기를 맞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Rosow(1974)는 일반적으로 노인은 그 존재 가치가 저하됨에 따라 젊은이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족이나 친척들의 무관심, 심지어는 노인들 간에 있어서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고 다른 단체와의 타협과 수용이 개인보다 어렵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특성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직장에서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고령층의 정보문화 활성화 방안, 서울: 정보화진흥원, 2009

3)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4) 김숙남·최순옥·신경일·이정희, 노화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2008

5) 송진영, 노인복지론, 나눔의 집, 2011

퇴직하게 되면서 중요한 대인관계가 많이 줄어들고,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인 유동성 때문에 사회적 접촉이 감소하여 노인들은 점점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여성의 경우 자식의 독립으로 인해 자기 정체성 상실을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는 경향도 보인다.⁶⁾

이처럼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들이 겪게 되는 사회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노인들의 퇴직이다. 퇴직은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은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와 정해진 제도나 규칙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인 문제와 장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생기게 되며 소득의 저하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위의 저하에 따른 자존심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고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 퇴직 후 2-3년 동안에 질병이나 사망의 확률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퇴직자들은 10-30년간을 역할 상실이라는 심리적 좌절감을 느끼며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가족 안에서 가장이나 어른으로서의 권리나 책임성 및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좌절감이 더욱 더 심화된다. 결국 퇴직을 계기로 하여 노년기 사회적 기능 쇠퇴는 사회적 역할, 사회적 접촉, 정보학습의 기회 상실 이 노인들에게 고립감을 느끼게 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족, 친구, 이웃 또는 이전의 동료와의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강화해 나가려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한편, 개인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은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에 못지않게 개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나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 상당한 사회적 생활에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되어간다. 이를 종합하면 은퇴 및 건강악화, 배우자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사회적 건강의 쇠퇴를 단계적으로 크게 위축시키는 사건으로서 사회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점들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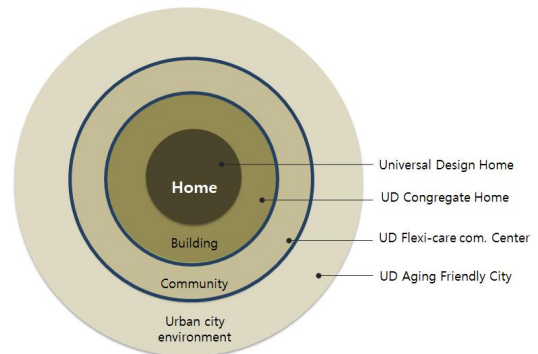
2.2. 노인과 일상적 거주 공간

(1) 노인의 삶터인 일상적인 공간 환경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적으로 100세 시대를 인지하는 시대로 움직이고 있고 의료수준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증가되어 퇴직 후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연숙(2006)⁷⁾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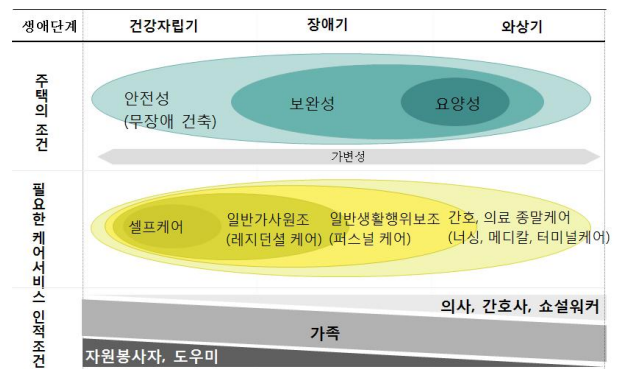
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환경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타 선진국과 달리 고령친화 환경 개발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있고, 최근 수요에 따라 생긴 노인주거 시설은 선진국들의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계획되어 왔고 또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 도시전반의 체계가 도시에서부터 커뮤니티, 건축, 주택,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령화 사회에서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피력되고 있다.



<그림 1> 도시공간환경의 주요체계와 노인 삶의 의존비중 체계도 이상적 방향

노인에게 있어 삶터로서의 일반적인 공간 환경은 공간 구성학적에서부터 환경계획을 거쳐, 제반 요소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개 공간이 어떻게 창조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간의 신체·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노인주택이란 이러한 요소들을 섬세하게 배려한 주택으로써 다른 주택과는 달리 건강 자립기, 장애기, 와상기로 나누어 봤을 때, 안정성 및 보안성 등이 강화된 주택이자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녀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주택에는 노화에 따라 필요한 여러 케어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변함으로써 인적구성이 달라져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수용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노인주택 정의

6) 송진영, 노인복지론, 나눔의 집, 2011

7) 이연숙, 복지사회를 위한 이 시대의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사회통합 친환경 정책심포지움: 국회도서관대강당, 2010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자택 내 케어의 어려움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 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Aging in place」를 선호하여 노인이 되어서도 기존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 속에서 노인이 거주하면서 기존에 알던 사람, 환경 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회적 관계를 지속시키려 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학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이 계획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문화와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90%이상의 인구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노인복지 방향은 재택거주이다.

이처럼 노인의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프로그램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으로서 공간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에서만 아닌 노인의 활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공간환경 변화까지도 논의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아가 공간을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적 관계의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노인주택을 선호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에는 어떻게 사회적 자극을 받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들어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주거선호를 사회적인 건강 차원에서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환경을 노화단계에 따라 만들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 노인주택 및 노인주택선호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있다. 이러한 노인의 주거선호를 파악한 연구 중 재택노인의 거주를 염두 해두고 다루고 있는 연구대상과 관련 변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노인주택의 유형

노인주택은 노인이 거주하는 모든 주거환경을 총칭할 수 있다. 이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정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건축되었지만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비계획주거와 노인을 위해 설계되어 지어진 계획주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여기서 계획이란 노인에게 거주성을 높일 수 있는 일련의 조치로 물리적, 사회적 계획을 모두 포함한다. 이것은 다시 집합정도에 따라 Independent Living, Shared Housing, Congregate Housing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Independent Living은 신체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형 건물에 노인이 독립적으로 사는 주거유형을 의미하며, Shared Housing은 앞서 표에서 볼 수 있는 공동사용주택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형태를 포함하고, Congregate Housing은 보다 집합적인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주택형

<표 1> 노후 주거선호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대상과 관련변인

구분	연구대상	관련 변인
곽인숙 (1998)	55세 이상 부부가구	독: 인구학적특성, 주택관련요인, 제정관련요인, 건강상태, 취업여부 중: 주택위치, 유형, 규모
홍형욱 (1999)	서울시, 60세이상 여성노인	독: 일반특성(연령, 학력, 거주지, 건강상태 등) 중: 시설접근성, 노인주거임주의사, 주택규모, 위치, 유형, 공간형태
이연숙 (1999)	55세이상 중년층	독: 사회경제적특성, 주거특성 중: 노년의 4가지 상황별 지리적 위치, 주택유형, 소유형태, 주택규모, 동거자
김유정 외 (2003)	서울시, 40-65세 장년층	독: 거주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가족형태,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중: 지리적 위치, 주거유형, 소유방식, 동거인, 주택평수, 노후생활비 부담,
조성희 (2003)	부산시, 40-50대 중년층	독: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소득, 주택유형, 소유상태, 주택규모) 중: 노후상황별 주택특성, 근린시설, 지원서비스
이준민 외 (2005)	서울시, 40-50세 중년층	독: 사회경제적변인, 사회활동변인 중: 자녀, 친척거주근접성, 노인단지구성, 근린생활시설, 교통 및 주변 환경
박신영 (2006)	도시, 농촌, 특정시설 이용자	독: 거주지역, 연령, 생활수준, 학력, 주택점유형태 중: 거주공간, 거주형태, 계획주거임주의사, 동거자
김미희 (2006)	광주지역, 대학생자녀 학부모	독: 가구특성, 주택특성 중: 노후주거계획, 제가복지서비스요구, 노년기 상황에 따른 주거유형, 동거유형 등
류혜지 (2006)	전국, 50-59세 예비노인	독: 사회인구학적특성(성별, 연령, 종로, 학력, 직업, 컴퓨터 사용수준, 소득) 중: 주거이동여부, 주거이동이유, 실내공간 중요도, 주거기능중요도, 단지구성
박혜연 (2011)	50대 이상의 아파트 거주자	독: 성별, 연령, 현재 경제활동 여부, 교육정도, 건강상태, 총 아파트 거주기간 중: 주거유형, 주택규모

* 표안의 독은 독립변인을, 중은 종속변인을 의미함

<표 2> 노인주택 유형분류

분류	비계획주거	계획주거
Independent Living	일반단독주택	노인단독주택 3세대 동거형 단독주택
Shared Housing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사용주택 약세사리 ECHO 하숙집
Congregate Housing	코하우징 집합주택 아파트	노인보호 서비스주택 노인집합주택 간호홈 은퇴주거단지 CCRC

출처: 김민수 외(2006)

태로 가정한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노인주택을 정리한 것이 <표 2>며, 각 노인주택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주택들도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많은 노인들이 이웃과 함께 집합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조건을 달리 가지고 있는 주거의 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노인주택의 유형을 논하였지만 사회적관계망 차원에서 조명만 하지 않았을 뿐, 이러한 사회적 건강에 관한 기반으로써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유형을 분리한 것 외에 여러 가지 노화에 따른 지원성을 다각적으로 배려하여 창의적인 주

거 유형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Aging in place」를 도모하기 위해 독일의 「apartment at Haus Hildegard」의 주거단지는 소규모 주거단지에 일정비용의 노인과 젊은 세대들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고, 이들의 관계를 엮어주는 코디네이터를 커뮤니티센터에 위치시켜 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공급 등이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며 새로운 사회관계를 안정되게 형성하며 살 수 있게끔 특별히 계획된 주택을 들 수 있다. 한편, 아일랜드의 「Nestling project」에서는 Aging in place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근린지역 환경에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주거를 위치시키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교한 계획을 하였다. 지역사회의 위치에 소규모 집합적인 노인주택을 배치시킨 것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건강을 특별히 배려한 주택들이 나오면서 주택개발에 있어 새로운 유형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쇠퇴현상을 지원하는 주거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출발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건강을 배려한 주거계획의 방향이 설정하는데 기여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인주택을 대상으로 그것이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 관점에서 지니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과 사회적 지원성, 그것에 잠재해있는 사회적 교류대상을 연계하고자 하였고, 자료는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3.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주택 유형

본 연구가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가족과의 동거유무 등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에 차이가 예상되어 일반가족형, 노인분리형, 노인통합형이라는 3가지 분류기준을 정하여 각 노인주택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가족형에 공유주택이, 노인분리형에 노인전용빌라형이 추가되어 총 15개의 노인주택유형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었으며, 3가지 기준별 15개 유형은 <표 8>과 같다. 기존자료에서 추출된 13가지 유형들을 소개된 기존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설명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3.2. 사회적 지원성 기준

머사(1976)는 디자인된 환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환경이 갖추어야 하는 지원성 체계를 사용자가 환

<표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주택 유형

주거유형	이미지	설명
단독주택		마당 또는 정원이 있으며 개별로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단독주택
별동형 단독주택		혈연 또는 비혈연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두 주택이 한 대문안에 계획된 주택
일반 아파트		여러 세대가 한 건물 안에 속해있으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노인전용 공동주택		여러 노인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며 개인실 외 거실·식당 등은 함께 사용하는 주택
빌라형 단독주택		각 노인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단독주택들이 인접한 소규모 빌라형 주택
노인복지주택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전용주거로 각종 편의시설 및 여가, 문화 등이 제공되는 주택
요양형 주택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을 전문치료진에게 상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택
은퇴자 커뮤니티		여러 주택형태가 제공되고 편의시설 및 가사 및 간호 서비스가 갖추어진 작은 도시
독립형 노인주거아파트		노인단독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더불어 일상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베란다를 정원형으로 계획한 주택
공유형 노인주거아파트		노인단독가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살되 한 층에 여섯 가구가 거주자 전용 헬스센터와 영화관을 공유하도록 계획한 주택
공적공간 공유형 공동생활주택		노인 혹은 노인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고 거실, 부엌 등의 공적인 영역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숙형 노인주택
보호 서비스형 공동생활주택		하나의 큰 집에 함께 살되 각각 개인방을 사용하고, 그 외에 모든 공유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케어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독립케어 서비스형 노인주거아파트		노인 거주자가 각각 독립된 주택에 살되 바로 옆에 간호서비스를 이웃과 함께 받을 수 있게 계획된 의료 간호 서비스 주택

이연숙(1993) 「한국형 노인주택」과 노인주거 통합형 아파트의 디자인 예시(2010)에서 추가함.

경으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이득의 개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사용자 이득이 논해지는 측면은 곧 그 환경 디자인의 지침 영역이 됨과 동시에 평가의 영역이 되는 것으로 그는 이것을 사용자 이득기준(User Benefit Criteria, 이하 UBC)이론이라 제창하였다. UBC 이론은 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의 4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사회적 용이성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조절하여 바람직한 수준으로까지 촉진시키는 환경의 지원성으로, 이는 제한된 건축공간에 더욱 과밀하게 되는 현대 건축의 경향과 집단의 상호작용과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노인의 사회적관계망 쇠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을 제공한다하여 사회적 관계가 완벽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의 개연성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노인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확률이 높아,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UBC이론이 언급한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물리적 공간이 가져야 하는 지원성을 되짚어보고 이들 관계를 종합적으로 논하고

자 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UBC이론 사회적지원성의 범주와 내용 및 각각의 예

범주	내용	본 노인주택과의 연계성 예제
사회적 용이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여 바람직한 수준으로까지 촉진시키는 환경의 지원성	주택의 거주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 배치 계획 여부
사회적 유인 (S·F)	환경이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가의 특성	주거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공간과 가구의 배치 계획 여부
사회적 관찰성 (S·O)	사회적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자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지의 특성	출입구, 로비 및 이동 동선의 공간 등 다른 공간에서 여러 세대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지의 여부
사회적 집중성 (S·C)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는지의 특성	집합 주거 환경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건물의 주 통로 주변에 사회 활동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사회적 고립 (S·I)	원하지 않는 사회적 접촉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공간이 계획되어 있는지의 특성	혼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의 존재 여부
사회적 편익성 (S·A)	환경적 특성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조해 주고 있는지의 특성	집합주거환경의 경우 복도에 사회적 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벤치 등의 존재와 효율적 계획 여부

이하에서는 사회적유인-Social Facilitation, 관찰성-Social Observability, 집중성-Social Convergence, 고립-Social Isolation, 편익성-Social Accommodation의 약자로 표기함.

3.3. 사회관계망 분석 대상

노인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사회적 지원성과 관계가 있는 공간적 특성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공간마다 특성을 추출하기에는 주택들의 스케일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출입구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대부분의 주택에서 존재 가능한 5가지 공동공간의 특성만을 선정하였다.

<표 5> 노인주택의 사회적 지원성과 관계있는 공간적 요소 선정

공간	추출이유
공동 출입구	건물 내에서 하나의 출입구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사람간의 만남 및 소통의 가능성을 달리 할 수 있다.
로비	현관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정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길로써 통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을 교류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거실	공동으로 앉을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교류의 가능성을 높게 지니고 있다.
이동 동선공간	같은 동선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별도로 각각 다니는 것 보다는 사람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관리자 공간	어떤 형태든 관리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나 만약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쉬운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관계망을 정리하고자 <표 6>과 같이 인적대상을 분류하였다. 대상은 혈연관계, 지연관계 및 지역관계 등으로 나누었는데 특히 노인의 경우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많은 교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웃은 총 4가지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나란히 또는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이 이웃의 일반적인 의미라면 본 연구에서는 인접·기능적 이웃, 지역주변에 거주하는 이웃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6> 사회 관계망 대상의 정리

대상	영문명	설명	본 연구의 정의
자녀	Children (Ch)	아들·딸과 같은 혈연적인 관계	아들·딸과 같은 혈연적인 관계
친척	Relative (Re)	친족과 외척성이 다른 일가	친족과 외척성이 다른 일가
친구	Friend (Fr)	가깝게 오래 사귀는 사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	성장기에 학교,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쌓아온 사람
동료	Colleague (Co)	같은직장 및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은직장 및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이웃1	Neighbor (N1)	나란히 또는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	인접 거주하는 사람
이웃2	Neighbor (N2)	나란히 또는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	종교·동아리에서 만난 사람
이웃3	Neighbor (N3)	나란히 또는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 사람
이웃4	Neighbor (N4)	나란히 또는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SP)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가사·간병·의료검진, 복지서비스,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자

이하에서는 자녀-Ch, 친척-Re, 친구-Fr, 동료-Co, 이웃-Ne, 서비스제공자-S-P 등 영문 약자로 표기함.

또한, 이들을 종합하여 주거유형별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지원성의 연계를 알아보하고자 각의 3가지 강도로 표시하였으며, 정도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표 7> 사회적 관계 강도에 관한 조작적 정의

구분	예제 항목	강도	주택 유형예제	설명
사회적 지원성	사회적 관찰성	강(●)	공유주택	입구에 들어오면 자기 방 이외에는 공동 공간을 거처거나 사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찰성이 높음
		중(●)	일반 아파트	독립성은 있지만 위아래 같은 층, 엘리베이터 및 같은 단지 등을 지나갈 시 이웃에게 보여질 확률이 있음
		약(○)	단독주택	집으로 들어가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낮음
사회적 관계대상 교류 가능성	인접·일반 이웃	강(●)	별동형 단독주택	두 주택이 모든 일상생활이 한 대문 안에 하기 때문에 항상 개방되어 있고 마주쳐 며 이웃 간 교류도 많음
		중(●)	일반 아파트	일상생활을 한 건물 안에서 하나 각각의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나뉘어 있어 관계를 끊을 수도 있지만 공용공간을 통해서 마주칠 확률이 있음
		약(○)	노인전용 공유주택	노인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서 같이 사는 노인들을 교류할 가능성은 크며 일반 이웃과의 교류할 가능성은 적음
공간적 특성의 사회적 교류 가능성	출입구 로비	강(●)	노인전용 공유주택	노인끼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일상생활을 함께하기 때문에 거주노인들과 교류가 많을 잠재성이 있음
		중(●)	일반 아파트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공용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마주칠 확률이 있음
		약(○)	단독주택	외부는 공공영역이기에 마주칠 일은 있지만 자기영역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확률이 적어 사회적 교류가 낮음

●: 강 ●: 중 ○: 약

지면상 사회적 지원성, 사회적 관계대상 교류가능성, 공간 내에서의 사회적 교류 가능성에 대한 강도를 각각 한 가지씩 열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찰성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구에 들어오면 자기 방 이외에는 공동공간을 거치거나 사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찰성이 높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 독립성은 있지만 위아래 같은 층 및 단지 등을 지나갈 시 이웃에게 보여질 확률이 있다. 또한 단독주택은 집으로 들어가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낮아 관찰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택의 유형과 사회적 관계성과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특성의 분석 기준은 첫째, 각 주택의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도모할 수 있는 5가지 공간들의 요소에 대한 특성별로 사회적 관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를 강, 중, 약으로 표시하였고 둘째, Murtha & Lee의 지원성 차원에서 5가지 세부 기능에 대한 지원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였다. 셋째, 각 주택이 사회적 관계 대상별 교류를 하게하는 가능성은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 표시하여 연계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분석결과를 총 15가지 주거유형을 일반 주택형, 노인 전용 주택형, 일반적인 커뮤니티 속에 노인을 통합시키는 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또한, 각 유형별로 주택이 지니는 각각의 선정된 공간의 요소별로 사회적 교류를 시킬 수 있는 정도를 논하고 Murtha & Lee의 사회적 지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논하며 교류지원 가능성을 논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첫째, 일반가족형의 사회적 관계 관련 공간적 요소 중 지면상 공동출입구와 공동거실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출입구의 경우 단독주택은 각 개별출입구이고 별동형 단독주택은 각 출입구에 두 개의 주택이 있는 것이다. 공유주택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빌라형 단독주택은 모여 있으나 각각 개별 출입구를 사용하고 일반아파트는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공용으로 있지만 개별단위 주거에는 각각 개별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별동형 단독주택과 공유주택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가 사회적인 접촉을 높게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공동거실인 경우 공유주택은 각 개인실 외 거실은 함께 사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접촉 가능성이 높고 단독주택, 별동형 단독주택, 빌라형 단독주택, 일반 아파트는 공동거실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의 가능성이 낮다.

사회적 관찰가능성(S.O)의 경우 다같이 모여 사는 공유주택과 일상생활이 한 대문 안에 계획되어 있는 별동

형 단독주택이 가장 높고 빌라형 단독주택과 일반아파트처럼 출입구로 인하여 관찰될 경우도 있는 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는 단독주택은 사회적 관찰성의 가능성이 낮다. 사회적 편익성(S.A)은 사람들이 대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적인 시설이나 가구의 설치여부로 별동형 단독주택과 빌라형 단독주택, 일반아파트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 벤치나 의자, 나무그늘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유주택의 경우 부엌이나 식당 어디에든 설비들이 갖춰있고 이러한 편익시설들을 다함께 사용할 수 있게 갖춰져 있다.

사회관계망의 유형 중 자녀의 경우 단독주택과 별동형 단독주택은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낮고 공유주택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녀가 살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빌라형 단독주택,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을 확률도 있다.

이상 세가지의 특성을 보았을 때 일반가족형으로 소개된 5가지 유형 중 사회적 교류가 가장 많은 것은 공유주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노인분리형 주택유형의 5가지 중 로비공간과 공동 거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공간적 요소를 보면 로비의 경우 노인전용 공유주택은 노인들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노인복지 주택, 요양형 주택, 은퇴자 커뮤니티 또한 노인전용주택으로써 이웃 간 사회적 교류의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인전용 빌라형 단독주택의 경우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의 가능성이 낮다. 공유주택과 요양형 주택의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접촉을 높게 하는 반면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여 노인전용 빌라형 단독주택은 경우 사회적 접촉의 가능성이 낮다. 사회적 편익성의 경우 사람들이 함께 노인들이 함께 모여 거주하는 노인전용 주택에서는 벤치나 의자 등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통합형 주택유형의 5가지 중 통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공간적 요소를 보면 통로의 경우 공유형 노인주택, 공격공간 공유형 공동생활 주택, 보호 서비스형 공동생활 주택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통로가 사회적인 접촉을 높게 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독립형 노인주거 아파트나 공유형 노인주거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을 수 있다.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독립형 노인주거 아파트, 독립케어 서비스형 노인주거 아파트의 경우에는 통로에서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관계망의 가능성의 경우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계획되어 있고 케어서비스가 제공되는 독립케어 서비스형 노인주거나 보호 서비스형 공동생

활 주택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유형별 노인주택들을 논의의 했으나 15가지의 주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가족형과 노인통합형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노인분리형은 대부분의 사회적 교류환경이 노인들을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교류가 많다하더라도 사회통합적인 교류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일반가족형과 노인통합형이 좀 더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노인주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보호와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등 안

정성을 감안했을 때에는 노인분리형의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노인통합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건강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노인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교류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어 결국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헬스 케어 인력의 부족 상황을 예상했을 때에 한국의 주거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어떠한 형태이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는 공간적 특성, 지원성 등은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이 가질 수 있는 특성과 노인전용 주택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특

<표 8> 주거유형별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지원성의 연계

주거유형	설명	사회적 관계					사회적지원성					사회관계망 관계성														
		공동 출입구	로비	거실	통로	관리실	S I	S O	S C	S I	S A	C h	R e	F r	C o	N 1	N 2	N 3	N 4	S P						
일반 가족 형	 단독주택	마당 또는 정원이 있으며 개별로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단독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별동형 단독주택	혈연 또는 비혈연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두 주택이 한 대문안에 계획된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주택	여러 세대가 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개인침실 외 거실·식당 등은 함께 사용하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빌라형 단독주택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관리하는 단독형주택들이 인접하여 군을 이룬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아파트	여러 세대가 한 건물 안에 속해있으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 분리 형	 노인전용 공유주택	여러 노인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며 개인실 외 거실·식당 등은 함께 사용하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전용 빌라형 단독주택	각 노인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단독형주택들이 인접한 소규모 빌라형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복지 주택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전용주거로 각종 편의시설 및 여가, 문화 등이 제공되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요양형 주택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을 전문치료진에게 상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은퇴자 커뮤니티	여러 주택형태가 제공되고 편의시설 및 가사 및 간호 서비스가 갖추어진 작은 도시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 통합 형	 독립형 노인주거 아파트	노인단독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더불어 일상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배란다를 정원형으로 계획한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형 노인주거 아파트	노인단독가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살되 한 층에 여섯 가구가 거주자 전용 헬스센터와 영화관을 공유하도록 계획한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적공간 공유형 공동생활 주택	노인 혹은 노인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고 거실, 부엌 등의 공적인 영역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숙형 노인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보호 서비스형 공동생활 주택	하나의 큰 집에 함께 살되 각각 개인방을 사용하고, 그 외에 모든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케어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독립케어 서비스형 노인주거 아파트	노인 거주자가 각각 독립된 주택에 살되 바로 옆에 간호서비스를 이웃과 함께 받을 수 있게 계획된 의료 간호 서비스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강 ○: 약

성들을 사회통합형 유형에서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거 계획에 있어 집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통합적 계획으로 가야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여건의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100세 시대에 퇴직 후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향후 이들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이들의 퇴직 후 쇠퇴하는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여러 노인주택 유형을 대상으로 그것이 사회관계 관점에서 지니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과 사회적 지원성, 그것에 잠재해있는 사회적 교류대상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차적으로 주택 유형별 사회적 관계 관련특성에 따라 정리가 되었고 노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의 가능성을 총 15가지로 하고 각각 일반형주택과 노인 분리형과 노인통합형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어떠한 형태이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는 공간적 특성, 지원성 등은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일반 주택이 접촉하는 이웃은 가족관계의 특성이나 일반이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노인전용주택에서는 보호와 더불어 노인 간의 관계, 새롭게 형성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등 새로운 노인들과는 사회적 교류가 있는데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과는 교류가 소원해지는 이분적인 특성이 있다. 사회적 지원성에도 관찰성은 일반주택이나 노인전용주택 모두 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장점들이 모두 취해지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일반형에도 있을 수 있는 사회통합형 유형들은 전반적으로 주택이 가질 수 있는 특성과 노인전용 주택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집합주택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거계획에 노인을 집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통합적 계획으로 가야하며 이때의 주거계획의 방향은 보다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주택이 지니는 여러 사회적 지원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하였고 주택이 지니는 사회적 지원성이 다각적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자료는 노인주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폭을 넓혔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후의 삶이 길어지는데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중요한 국면에 대한 설명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신체·생리적 기능쇠퇴를 보완하기 위한 주택계획 연구에 편입 되어 있는 주거계획

의 시각을 보다 총체적 건강을 지원하는 시각으로 확장시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종일·최혜지, 쉽게 쓴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서울, 2007
2. 송진영, 노인복지론, 나눔의 집, 2011
3. 이연숙·이성미, 건강주택, 연세대 출판부, 서울, 2006
4. 이연숙,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 출판부, 서울, 1998
5. 임우석 외, 노인복지론, 신정출판사, 서울, 2012
6. 정원숙·유계숙, 가족관계, 신정출판사, 서울, 2001
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고령층의 정보문화 활성화방안, 서울: 정보화진흥원, 2009
8. 강우영, 노년기 인간관계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2008
9. 관만석,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침례신학대 석사논문, 2005
10. 박혜연, 사회마케팅 관점에서 본 노인주거 통합형 아파트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11
11. 윤형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 박사논문, 2010
12. 이영주, 중년기 부부의 노후준비도와 노화불안, 한서대 석사논문, 2010
13. 임관희,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 변화를 위한 실버스트레칭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분석, 명지대 박사논문, 2007
14. 장희선, 농촌여성노인 배우자 사별 후 적응과정, 한서대 박사논문, 2011
15. 정영자, 울산광역시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및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10
16. 최은경,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원설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10
17. 관인숙, 노인의 취업여부와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선호, 대한가정학회지 129, 1998
18. 김혜연,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통권 제21권 제5호, 2010
19. 신영숙,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8
20. 안소미·이연숙,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령친화환경 분야 최근 경향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통권43, 2010
21. 이에구, Murtha & Lee UBC이론에 따른 도시한옥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통권13(1), 2010
22. 황선혜·이연숙·윤혜경,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주거이동계획 패턴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통권45호, 2010
23. 이연숙, 사회통합 주거문화혁신 디자인 국제교류전,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주관, 서울, 2009
24. Pauline S. Re-creating neighborhoods for successful aging, 2008

[논문접수 : 2013. 08. 30]

[1차 심사 : 2013. 09. 22]

[게재확정 : 2013. 10. 11]